

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.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나 생각이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.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.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. <글책임: 편집자> ●보낼곳: 우 110-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-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'길을 묻는 이에게' 담당자 앞 ●인터넷: www.hanmaum.org 또는 한마음선원 ●FAX: (031)470-3116



대행 스님

길을 묻는 이에게

제 730호 **현대불교**
2009년 5월 6일(음력 4월 12일) 수요일 / 불기 2553년
법공양 페이지

25

자기 주인공을 믿지 않고 누굴 믿어요, 세상에!

(지난 호에 이어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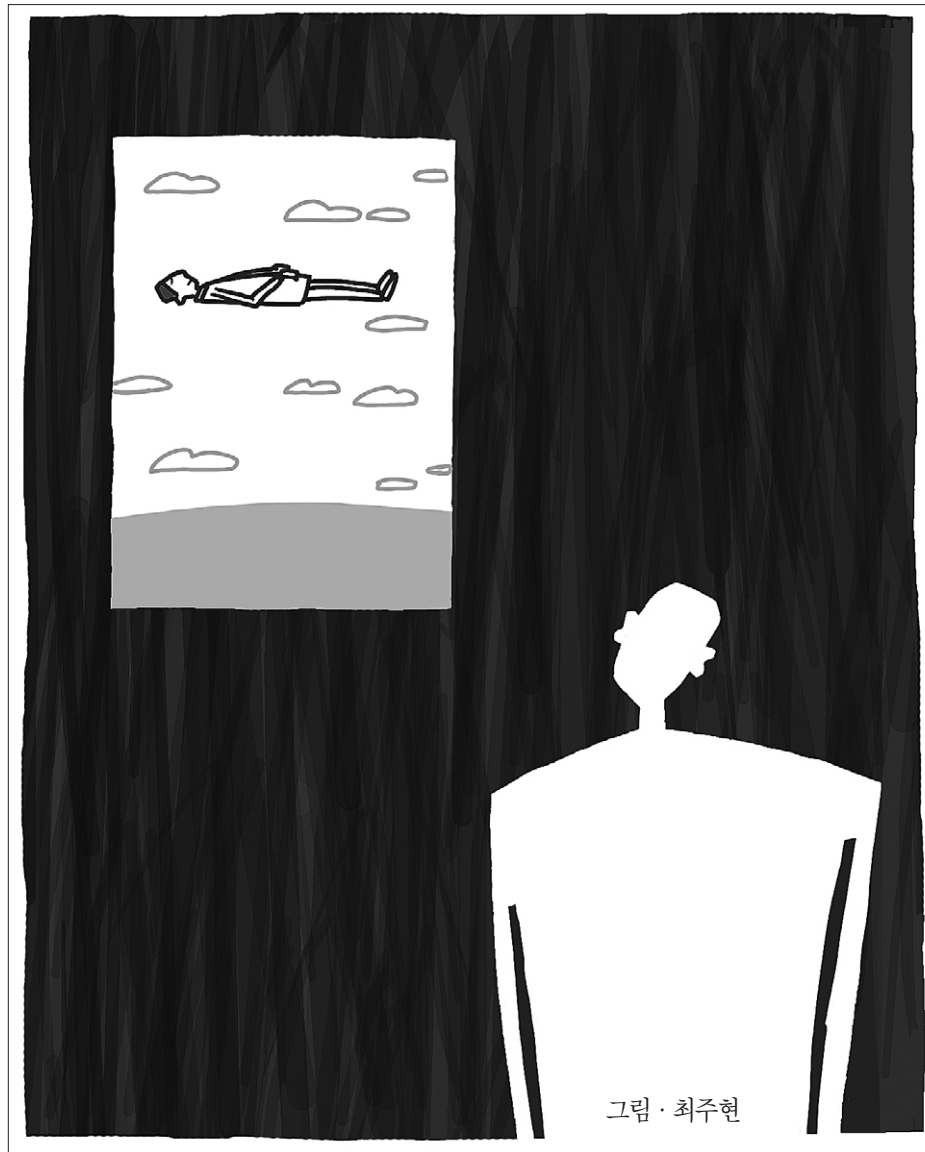
질문자(남): 그래, 6월 한 달은 쉬고 7-8월 계속해서 제가 몸이 다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그런 일이 연거푸 생겼습니다. 그리고 뭐 병원에 도둑이 든다든지, 손이 부러진다든지 일 년 내내 하여간 그런 일이 연거푸 일어나 열두 달 동안에 두 달만 빼놓고 열 달 동안 제가 주인공으로부터 철퇴를 맞았습니다. 맞고는 마지막 12월을 보내면서 제가 작심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. '아! 이제는 정말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!'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 년이 또 지나갔는데도 일 년 동안에 아무런 체험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굉장히 슬펐습니다.

저는 학교 공부도 남 못지않게 잘해서 명문학교만 다니고 서울대학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내가 이 불법을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왜 안되는가? 정말 뻔 법우님들은 몇 달도 안 돼서 주인공과 같이 된다는 체험을 터뜨 하는데, 몇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나는 얻어터지기만 하고 좋은 체험은 하나도 없나? 언제쯤 하게 되나 하고, 마음속으로 참 많이... 여하간 제가 공부 부족할 걸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또 일 년이 지나갔습니다.

그래서 94년이 됐습니다. 94년 새해가 얼마 안 돼서 밤에 제가 한번은 꿈을 꾸었어요. 꿈을 꾸었는데 제가 꿈속에서 어떤 사형장에 나가 있었습니다. 죄목은 알 수가 없는데 사형장에 가서 옆에 도부수가 이제 목에 침을 탁 뱉고 칼을 빙빙 돌리면서 제 목을 쳐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. 그 순간에 어떤 스님이 오셔서 "뭐,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" 하고 저에게 물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"아니, 나는 주인공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님이 도와주실 필요가 없다." 하고, 괜찮다고, 가시라고 제가 꿈속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그리고는 앉아 있는데 죽지 않고 그냥 그 꿈이 그런 상황으로 그대로 끝났습니다. 그래서 그 꿈을 깨고는 뭔가 좀 낫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

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다시 꿈을 꾸었는데 꿈에 큰스님께서 나오셔서 저에게 "아! 이제부터는 너 안 아프게 잘 살 수 있을 거야." 하시면서 국소마취를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. 그런데도 잠, 체험은 안 오고 해서 업장이 얼마나 두터워서 안되는지, '언제쯤 가야 정말로 나는 이 주인공 존재를 느끼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나.' 정말 제가 마음으로 간절하게 고하고 있었습니다.

그러던 어느 날인데 제가 데리고 있는 간호사 한 명이 민식이 다 돼서 수술을 하려고 하고 있었



습니다. 그런데 이 아가씨가 본래 혈압이 조금 높아서 예정일보다 조금 당겨서 수술 날짜를 잡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대개 수술을 하기 2-3일 전에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다 하거든요. 그런데 한 보름을 남겨 놓고 어느 날 갑자기 검사를 해보라고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꼭 던져 버렸어요. 그런데 검사 결과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.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체크를 해 보니까 혈압이 거의 뭐 200까지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뒀으면 산모나 애기나 그날 밤에 어떻게 됐지도 모를 아주 위중한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. 그 검사를 통해서 그 상태를 미리 알아 가지고 그

날 바로 수술을 해서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.

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꿈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'아! 주인공 자리에서 이제 좀 뭔가 알려주나 보다.'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, 한번은 또 제가 분만을 하려고 소독된 장갑을 끼었습니다. 그런데 장갑을 끼면서 제가 간호사들을 보고 "너희들이 이 장갑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?" 하고 물었습니다. 장갑 소독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무장갑 같은 거는 고온멸균소독을 해야 합니다. 고온멸균소독 하느냐고 확인을 해 보니까 천만 푼밖에 그렇게 안 하고 자외선소독을 한다는 겁니다. 자외선소독은 완전 멸균이 안

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거죠.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날 분만을 하고는 불렀습니다. 그래서 언제부터 그렇게 했느냐 하나까 제가 개입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다는 겁니다.

그러니까 3년이 넘도록, 말하자면 소독이 안된 장갑을 끼고 수술하고 분만을 했는데 그 동안 아무 탈이 없었던 것도 너무 신통하고, 제가 보통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분만하는데 그날따라 제가 그렇게, 아마 그것도 주인공 자리에서 더 이상 명칭하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하라고 일러 준 걸로 생각을 하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평소에 일을 하다가 잠시 이렇게 앉아 있거나 하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'아, 그렇지! 왜 그걸 예전에 몰랐을까?'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받아지는 느낌이 들기는 들었습니다.

그리고 또 한번은 제가 분만을 했었는데 애기가 한 시간 만에 갑자기 사망을 했었어요.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개입해서 사망한 애기가 두 명이 있었는데, 처음에는 겁이 나서 큰스님께 바로 고하고, "아이고 스님! 환자들이 난동을 부릴지 모르니까 좀 도와주세요." 하고 스님께 매달렸는데 작년에 두 번째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'이래서 큰스님께 또 말씀을 드리면 큰스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! 저런 걸 혼자 해결을 못 하고 찾아오면 참 저리 한심한 친구를 어떻게 하나.' 하고 스님께서 슬퍼하실 것 같아서 그냥 '아이고, 만드는 것도 너, 죽이는 것도 너, 뭐 병원을 부수는 것도 너!' 하고 하여간 다 그냥 맡겨 버렸습니다.

맡겨 버렸는데 그날 밤에 애기를 병원 영안실로 보내고 애기 아빠랑 저와 같이 제 차를 타고 오는데, 애기 아빠 표정이 아주 사나워져서 금방이라도 저를 내려칠 그런 표정이었고 그래서 밤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몰랐습니다만 그냥 정말 마음 자리에 고하고 저는 집으로 갔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와 보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애기가 허파에 구멍이 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아주 심한 선천성 기형이 있는 아이라는 게 판명이 났습니다.

그래서 아무 탈이 없이 잘 지나갔는데, 그러고는 제가 마음에 조금 자신을 가졌습니다. '아! 이렇게 주인공 자리에서 나를 이유 없이 골탕 먹이지는 않으니까 이제는 내가 겁내지 않고 세상을 살 수가 있겠다.' 그렇게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경우에 결정적으로 실수를 할 상황이 되면 주인공 자리에서 저를 딱 이렇게 막아서는 걸 느꼈습니다.

한번은 일요일 새벽에 분만을 하고 아침에 선원을 오려고 하는데 병원에 가기가 아주 귀찮았어요. 잠을 못 자서요. 그래서 그냥 '선원에도 가지 말고, 산모도 보지 말고 그냥 보내야 되겠다.' 이렇게 하고 다시 자려고 누웠습니다. 그런데 딱 놓자마자 갑자기 '아니, 너 분만한 산모 자궁 속에 거즈를 넣어 놔서 너무 아팠어라고 지금 누워 있느냐.'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산부인과 의사를 한 지 13년이 넘었는데 그런 실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. 그런데 그날따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한번 드니까 누워 있어도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요. 잠을 잘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병원을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환자 자궁 속에 거즈가 딱 들어 있었습니다.

그래서 깜짝 놀라서 거즈를 끄집어내고는 '아! 참 주인공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구나. 정말 감사하다. 그런데 왜 이렇게 몇 년 동안이나 골탕을 많이 먹고 나타났는지, 그래도 고맙기는 고맙지만 내가 좀 더 일찍 이렇게 주인공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았겠는가?'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전에는 분만을 하면 한 달에 꼭 두세 명은 애기가 상태가 나빠서 종합병원으로 애기를 늘 보내야 했습니다. 상태가 뭐 여기가 안 좋고 저기가 안 좋고 그래 가지고요. 그런데 최근 1년 동안에는 단 한 명도 애기가 안 좋아서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. 그러나 그거는 저만 좋은 게 아니고 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좋고 그런 건데 왜 이 공부를 내가 이렇게 늦게야 만났을까?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스님, 그래서 저는 '참나가가 이 육신과 이 마음을 참 잘 이끌어 가고 있구나. 아직은 모르는 게 많지만 점차 점차 뭔가 이렇게 밝아질 것 같다.'는 그런 예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

그런데 제 주위에 보면 건강이 안 좋든지, 또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정신적으로 방황을 한다든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. 그래서 그분들을 위하여 저에게 일이 닦혔을 때 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주인공 자리에 관(觀)하고 놓습니다만 물론 아직 제가 때가 덜 닦여서 그렇겠지만,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관한 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'그렇다면 내가 정말 공부 가 된 건가 안된 건가. 정말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.' 그

26면으로 계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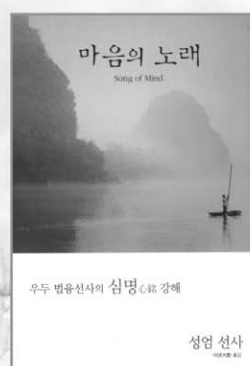
선禪의 전통이 위협받는 시대에 다시 읽는 선의 정수!

대만의 성업선사 1930~2009가 현대의 수행자들을 위해 설한 선의 고전 강해

마음의 노래

- 우두범용 선사의 「심명心鏡」 강해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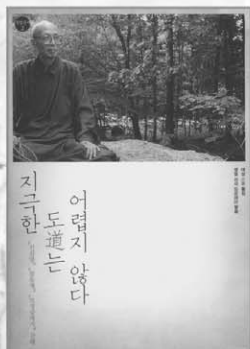
대성대륜 옮김 | 320쪽 | 12,000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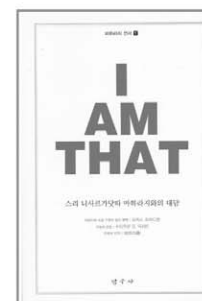
지극한 도道는 어렵지 않다

- 「신심명」, 「참동계」, 「보경삼매가」 강해

대성대륜 옮김 | 288쪽 | 12,000원



탐구사 전화 (02) 702-3557 팩스 702-3558



아이 엠 댓

- 니사르가닷타 마하라지와의 대담

'내가 있다'는 자각의 수행법과 깨달음의 극치를 설한 불멸의 고전

마하라지 | 대성대륜 옮김 640쪽 | 25,000원



무스탕

- 시간의 저편으로 떠난 여행

히말라야의 은둔 왕국 무스탕, 그 아득한 비경을 담사한 기록

대원 지음 | 335쪽 | 17,000원



네루 평전

- 자와할랄 네루의 생애와 유산을 통해 현대 인도를 이해하다.

사시 타루 지음 | 이석대 옮김 | 320쪽 | 15,000원

구입처 교보문고, 영풍문고, 알라딘, 예스 24, 운주사 및 전국의 주요 불교서점